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 청소년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

권 오 연¹⁾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임 정 하²⁾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서울과 경기도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73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다집단 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우울 증상은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자기수용을 통해 우울 증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우울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자기수용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한다면 남녀 청소년들의 자기수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울 증상을 더 자주 경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것이 청소년의 자기수용 능력을 길러주고, 우울 증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심리적 통제, 자기수용, 우울 증상, 부모, 청소년

* 이 연구는 2019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로, 2018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

1)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E-mail : jhlim@korea.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발달과 함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내적·외적으로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로, 다양한 변화 속에서 혼란을 겪기도 하여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울 증상은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심리적 문제로, 사춘기를 전후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정서적 문제 중 하나이다(정옥분, 2006).

우울이란 자기 자신, 경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서 슬픔, 실망감, 무관심을 경험하는 마음의 부정적인 상태이다(Beck, 1976). 일반적으로 우울이라는 용어는 상황에 따른 정서 상태인 우울 기분(depression mood), 증상으로서 지속되는 상태인 우울 증상(depressive symptom), 그리고 임상 진단군으로서의 우울증(depressive disorder)의 의미로 구분된다(김미령, 2014; 김영아, 2000).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상태인 우울 증상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울 증상이 지속될 경우 죄책감, 무가치함, 무력감, 식욕저하, 그리고 수면장애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Radloff, 1977). 그리고 우울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우수경, 김기에, 2013), 비행(곽금주, 문은영, 1993; 우채영, 정현희, 2013), 자살(강희양, 양경화, 2013) 등의 부적응적인 문제들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의 우울

증상으로 인한 문제는 성인기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김봉년, 조수철, 2000), 청소년기의 우울 증상으로 인한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한데, 크게 개인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에는 자아존중감(김갑숙, 전영숙, 이철우, 2009), 자기효능감(이지은, 김은영, 2015) 등이 있으며, 환경적 요인에는 부모의 양육행동(김보경, 민병배, 2006), 사회적 지지(김선하, 김춘경, 2006) 등이 있다.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가운데 과거나 현재의 양육자와의 경험은 우울 증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Blatt, 2004). 실제 여러 연구에서도 부모가 청소년의 우울 증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성준모, 2016), 부모 요인 중에서도 자녀에게 일관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통제에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 자녀들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자녀에게 과도한 학업적 압력을 가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심리적 통제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적 통제란 부모가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이용하여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영역에 개입하려는 부모의 시도이다. 이는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로 나누어진 다(Barber, 1996). 전자는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자녀에 대해 부모가 불안을 느끼게 됨에 따라 행하게 되는 심리적 통제행동을 의미하고, 후자는 부모의 성

취기준을 자녀가 따르게 하기 위해 행하는 심리적 통제행동을 의미한다. 어떠한 방식이든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다.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독립과 자율의 욕구가 강해지며,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김선하, 김춘경, 2006). 이와 같이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아를 찾고자 하는 청소년의 욕구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Barber, 1996). 기존 연구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우울 증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안명희, 신희수, 2012; Barber, Olsen, & Shagle, 1994; Barber, Stolz, & Olsen, 2005).

심리적 통제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대해서만 다루었거나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점수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점수를 합산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Rogers, Buchanan, & Winchell, 2003).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기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Bosco, Renk, Dinger, Epstein, & Phares, 2003; Russell & Saebel, 1997). 실제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구분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 자녀

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났다. 일부 선행연구들(이은경, 박성연, 2011; Barber, Bean, & Erickson, 2002)에서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보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나타난 반면에,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보다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나타난 연구(Cascio, Guzzo, Pace, Pace, & Madonia, 2016)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구분하여, 자녀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우울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정유나, 2015; 황윤조, 2011), 자기가치감(Garber, Robinson, & Valentiner, 1997), 비합리적 신념(조은주, 이은희, 2013)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같은 인지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우울 증상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eck(1997)이 제시한 우울의 인지이론에 의하면 우울의 일차적인 원인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며,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도식으로 인해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어 우울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즉,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우울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청소년이 자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추구할 때 부모가 이를 심리

적으로 저지한다고 느끼며 부정적 경험과 갈등이 계속되면, 청소년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도식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도식에 의해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우울 증상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 자녀의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통해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우울의 인지이론 틀에 따라 고려해볼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중 하나로 자기수용을 들 수 있다. 자기수용이란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게, 적절하게 행동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스스로를 온전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Ellis, 1977).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기수용 능력이 낮으면 우울 증상을 자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사라형선, 2012; 이유라, 2017; Chamberlain & Haaga, 2001; Flett, Besser, Davis, & Hewitt, 2003). 그리고 자기수용 능력이 낮으면 분노나 우울 증상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통제할 수 없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rson & Langer, 2006).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자기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증상을 경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수용과 같이 자신에 대한 태도는 의미 있는 타인과의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Sullivan, 1953). 특히 가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은 자신에 대한 태도

를 형성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임전옥, 장성숙, 2012). 기존 연구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상호작용하고 자녀를 수용해 주는 것은 자녀의 자기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윤희, 2008; 송지은, 임정하, 2015). 반면에 부모가 자녀를 과보호하거나 자녀에게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자녀를 계속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자녀의 자기수용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성민, 2014; 이지련, 2017). 또한 부모가 심리적으로 통제할수록 자녀는 스스로를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Soenens, 2008; 유임경, 2015; 이지련, 2017). 이를 종합해보면,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지각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자기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초등학교 자녀의 자기가치감은 낮았으며, 자녀의 낮은 자기가치감은 높은 우울 증상으로 이어졌다(Garber et al., 1997). 그리고 부모가 심리적으로 많이 통제한다고 지각하는 자녀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이로 인해 우울 증상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은, 2012; 황윤조, 2011).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자기수용이 매개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별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수용 및 우울 증

상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울 증상은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지만(곽금주, 문은영, 1993; 이정선, 이형실, 2012; 최인숙, 2012; Hankin et al., 1998),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자기수용의 성차는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았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남학생이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서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는 반면(박성연 외, 2008), 하위요인에 따라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오연경, 임정하, 2017). 또한 청소년의 자기수용 수준도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한 연구(Cross & Madson, 1997; Negovan, Bagana, & Dinca, 2011)가 있는 반면, 성차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이은택, 2016)도 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성별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수용의 차이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수용 및 우울 증상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재탐색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특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또한 아들과 딸은 아버지, 어머니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Steinberg, 2001). 그러므로 매개모형에서도 성별에 따른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수용 및 우울 증상 수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후,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자기수용 및 우울 증상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자기수용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1 참조). 이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매개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밝히고, 청소년의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청소년의 우울 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자기수용 및 우울 증상은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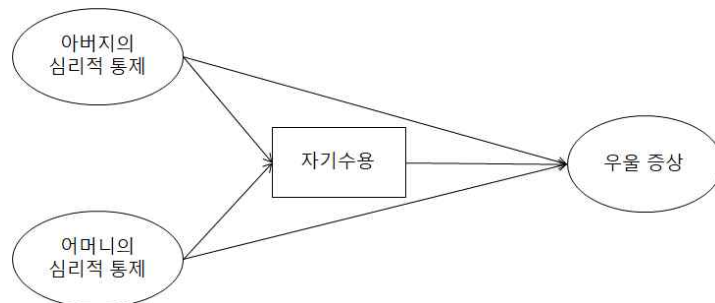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연구문제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자기수용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자기수용 및 우울 증상 간 관련성의 경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7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에서 남학생은 181명(48.5%), 여학생은 192명(51.5%)이었다.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16.66세($SD = 1.57$)이었다. 학년분포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39명(10.5%), 중학교 2학년 100명(26.8%), 중학교 3학년 9명(2.4%), 고등학교 1학년 27명(7.2%), 고등학교 2학년 198명(53.1%)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부: 48.3%, 모: 48.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관리직(31.4%)이,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28.2%)가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심리적 통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Soenens와 Vansteenkiste(2007)가 개발한 DAPC(Domain-specific Assessment of Psychological Control)를 박성연과 이은경(2009)

이 번안한 심리적 통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9문항과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8문항,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요인은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자녀에 대해 부모가 불안을 느끼게 됨에 따라 행하게 되는 양육 행동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아버지(어머니)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나에게 실망감을 나타내신다.’ 등이 있다.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요인은 부모의 성취기준을 자녀가 따르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양육 행동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완벽하게 행동하지 못하면, 나를 덜 다정하게 대하신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양육 행동에 대해 청소년이 응답하게 된다.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해당 심리적 통제를 많이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성연과 이은경(2009)은 구인타당도,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고, 하위요인별 Cronbach α 는 .86~.90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는 아버지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88, 아버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94,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92, 어머니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96으로 나타났다.

자기수용

청소년의 자기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Chamberlain과 Haaga(2001)가 개발한 USAQ(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를 김

사라형선(2005)이 타당화하고, 서은경(2011)이 수정한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수용이란 개인의 유능함과 무관하게, 혹은 타인의 존중이나 사랑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내가 그저 한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가치로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Likert식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청소년이 응답하는 방식이다. 부정적 문항 5개의 점수는 역채점을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수용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은경(2011)은 구인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문항 전체의 Cronbach α 는 .82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는 .80으로 나타났다.

우울 증상

청소년의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전검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번안하고 수정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울 증상을 경험한 빈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하위요인인 우울 감정 7문항, 긍정적 감정 4문항, 신체 및 행동 둔화 7문항, 대인관계 2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 감정 요인은 슬프고 외로운 감정을 측정하는 것이며, 예시문항으로는 ‘우울했다.’ 등이 있다. 긍정적 감정 요인은 희망적이고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측정하는 것이며, 예시문항으로는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등

이 있다. 또한 신체 및 행동 둔화 요인의 경우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기 힘들거나 귀찮은 감정을 측정하는 것이며, 예시 문항으로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등이 있다. 대인관계 요인은 타인이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경험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예시문항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로, ‘드물게’(0점)에서 ‘거의 대부분’(3점)까지 청소년이 응답한다. 긍정적 감정 요인 문항의 점수는 역채점을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감정을 드물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총점은 하위요인 점수들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을 자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검구 외(2001)는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문항 전체에 대한 Cronbach α 는 .91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는 우울 감정 .89, 긍정적 감정 .80, 신체 및 행동 둔화 .79, 대인관계 .90, 전체 .93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8년 3월 청소년 59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2018년 4월 청소년 409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에 교사들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였고, 설문 전 연구의 목적, 설문에 대한 유의사항, 소요시간 및 비밀 보장 원칙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였으며, 참여 학생들과 협조 교사

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설문에 응답하는 데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배부된 설문지는 모두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25부)했거나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11부)를 제외한 373부(91.2%)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및 우울 증상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및 우울 증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증상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시행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χ^2 , TLI, CFI, RMSEA를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남녀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의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자기수용 및 우울 증상의 성별에 따른 차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자기수용, 우울 증상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자기수용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증상의 전체평균은 여학생 집단의 평균($M = 1.95$, $SD = .56$)이 남학생 집단의 평균($M = 1.78$, $SD = .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89$, $p < .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 감정 요인($t = -3.45$, $p < .01$), 긍정적 감정 요인($t = -3.06$, $p < .01$), 대인관계 요인($t = -2.68$, $p < .01$)에서 여학생 집단의 평균이 남학생 집단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기에 앞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자기수용 및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우울 증상과 정적 관련성을 보였고(부 분리불안: $r = .36$, $p < .001$, 부 성취지향: $r = .32$, $p < .001$, 모 분리불안: $r = .42$, $p < .001$, 모 성취지향: $r = .40$, $p < .001$), 자기수용과 부적 관

표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수용과 우울 증상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독립표본 *t* 검증 (*N* = 373)

		남학생 (<i>n</i> = 181)	여학생 (<i>n</i> = 192)	<i>t</i>
		<i>M</i> (<i>SD</i>)	<i>M</i> (<i>SD</i>)	
부	분리불안	1.64 (.62)	1.64 (.66)	-.01
	성취지향	1.44 (.63)	1.39 (.68)	.76
모	분리불안	1.58 (.67)	1.69 (.80)	-1.53
	성취지향	1.43 (.66)	1.45 (.76)	-.28
자기수용		4.31 (.88)	4.25 (.88)	.76
우울 감정		1.55 (.64)	1.78 (.68)	-3.45**
긍정적 감정		2.43 (.76)	2.66 (.69)	-3.06**
신체 및 행동 둔화		1.75 (.60)	1.79 (.56)	-.76
대인관계		1.45 (.73)	1.67 (.85)	-2.68**
우울 전체		1.78 (.55)	1.95 (.56)	-2.89**

주. 우울 증상의 하위 요인인 긍정적 감정 요인 문항의 응답치는 역채점한 것임.

** $p < .01$.

표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자기수용 및 우울 증상 간의 상관관계 (*N* = 373)

			우울 증상					자기 수용
			우울 감정	긍정적 감정	신체 및 행동 둔화	대인 관계	전체	
심리적 통제	부	분리불안	.34***	.23***	.30***	.35***	.36***	-.28***
		성취지향	.30***	.21***	.27***	.28***	.32***	-.30***
	모	분리불안	.42***	.23***	.34***	.41***	.42***	-.34***
		성취지향	.40***	.21***	.33***	.37***	.40***	-.33***
자기수용			-.45***	-.51***	-.40***	-.41***	-.52***	-

주. 우울 증상의 하위 요인인 긍정적 감정 요인 문항의 응답치는 역채점한 것임.

*** $p < .001$.

련성을 보였다(부 분리불안: $r = -.28$, $p < .001$, 부 성취지향: $r = -.30$, $p < .001$, 모 분리불안: $r = -.34$, $p < .001$, 모 성취지향: $r = -.33$, $p < .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증상,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보다 청소년의 우울 증상 및 자기수용과 더 강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기수용은 우울 증상과 강한 부적 관련성이 나타났다($r = -.52, p < .001$).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기수용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15 \sim 1.88$ 이고, 첨도는 $-.65 \sim 3.32$ 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증상을 잠재변인으로 사용하고, 잠재변인들의 집중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표준화 계수가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자기수용 및 우울 증상의 완전매개모형인 기본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 중, 최종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본모형과 연구모형 간의 자유도 차이는 2이며, χ^2 의 차이($\Delta\chi^2 = 47.901$)가 임계값인 5.99보다 크므로 최종적으로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 또한 여러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가 기본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보다 모든 지수에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증상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연구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표 3 참조).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2와 같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서 청소년의 자기수용으로 가는 경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29(p < .001)$ 로 나타났고, 청소년의 자기수용에서 우울 증상으로 가는 경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36(p < .001)$ 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서 청소년의 우울 증상으로 가는 경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34(p < .001)$ 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는 스스로를 잘 수용하지 못하며, 이는 다시 우울 증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자기수용과 우울 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연구모형의 다중상관자승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수용을 설명하는 변량은 15%,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및 자기수용이 우울 증상을 설명하는 변량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자기수용 및 우울 증상 간의 효과를 파악하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여 자기수용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에서 청소년의 자기수용으로

표 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자기수용 및 우울 증상의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조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기본모형(완전매개모형)	108.583	22	< .001	.924	.953	.103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60.682	20	< .001	.961	.978	.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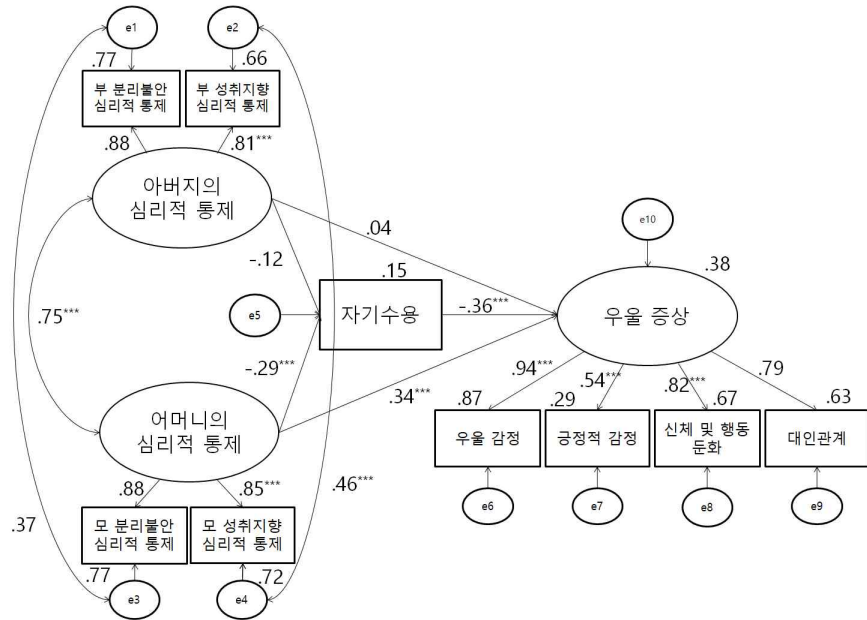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자기수용 및 우울 증상에 대한 부분매개모형
*** $p < .001$.

표 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 및 우울 증상 간의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 C.I.
부 심리적 통제 → 자기수용	-.12*	-	-.12*	-
모 심리적 통제 → 자기수용	-.29**	-	-.29**	-
자기수용 → 우울 증상	-.36**	-	-.36**	-
부 심리적 통제 → 우울 증상	.04	.04*	.09	.01~.07
모 심리적 통제 → 우울 증상	.34**	.11**	.45**	.08~.14

* $p < .05$. ** $p < .01$.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12이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서 청소년의 자기수용으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29이다. 청소년의 자기수용에서 우울 증상으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36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

증상으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는 .04, 간접효과는 .04, 총효과는 .09이며, 간접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 증상으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는 .34, 간접효과는 .11, 총효과는 .45이며 모든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효과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기수용을 매개로 하여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나이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연구모형의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이용해 집단 간 경로계수를 비교하였다. 먼저, 본 연구모형이 남녀 청소년 집단의 자료에 모두 적합하지 살펴보기 위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별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모두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남: $\chi^2_{(20)} = 52.63$, $p < .001$, TLI = .937, CFI = .965, RMSEA = .095; 여: $\chi^2_{(20)} = 24.22$, $p = .233$, TLI = .992, CFI = .996, RMSEA = .033). 다음으로, 남녀 청소년 두 집단이 측정도구를 동일하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같은 수준의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도록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기저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χ^2 값은 유의하였지만, TLI는 .965, CFI는 .981, RMSEA는 .050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

다. 그리고 두 집단에서 요인부하량을 동일하게 제약한 완전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χ^2 값은 유의하였지만, TLI는 .961, CFI는 .975, RMSEA는 .053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하지만 기저모형과 완전측정동일성 모형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모형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완전측정동일성 가정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완전측정동일성 모형이 아닌 부분측정동일성 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김한조, 2010). 부분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 요인부하량, 즉 아버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 대한 제약을 풀고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모형 간의 χ^2 값의 차이가 6.72($df = 4$)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부분측정동일성 가정이 수락되었다.

다음으로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 따라 최종모형의 경로계수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부분매개모형 내의 경로계수 모두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구조 동일성 모형)과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부분측정동일성 모형)을 비교하였다. 두 모형의 χ^2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모수에

표 5. 성별에 따른 동일성 검증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Delta\chi^2/\Delta df$
기저	76.845	40	< .001	.965	.981	.050	
완전측정동일성	91.502	45	< .001	.961	.975	.053	14.657/5
부분측정동일성	83.568	44	< .001	.966	.979	.049	6.723/4
구조 동일성	89.212	49	< .001	.969	.979	.047	5.644/5

대한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구조 동일성 검증 결과, 두 모형 간의 χ^2 값의 차이가 5.64($df = 5$)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경로계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자기수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자기수용과 우울 증상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자기수용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박신영, 2014; 박효정, 2015; 오연경, 임정하, 201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의 부모들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고 자녀와 상호작용 함으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기수용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자기수용의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들(임정하, 송지은, 곽태희, 백지민, 권오연, 2017; 추미례, 이영순, 201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신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의 성별보다는 개인의 가정환경이나 경험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우울 증상에서는 성차가 나타났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슬프고 외로운 감정을 자주 느끼고, 희망적이고 즐겁고 행복한 감정은 덜 느끼며, 타인이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느껴 우울 증상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우울 증상을 더 자주 경험한다는 선행연구들(곽금주, 문은영, 1993; 박슬기, 2011)과 일치한다. 우울 증상은 15~18세 사이에 성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때 여학생들의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nkin et al.,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발달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자기수용 및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검증한 결과,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 자녀의 자기수용과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 자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자기수용을 통해 청소년 자녀의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효과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는 연구(정유나, 2015)와 같은 맥락에 있다. 자기수용의 완전매개효과만 나타난 것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우울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자녀의 인지적 요인을 통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자기수용과 우울 증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기수용을 통해 우울 증상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등학교 자녀의 우울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울 증상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지은, 2012)와 같은 맥락에 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많아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양육자는 어머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의 우울 증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자기수용을 통해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성취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치 있게 여기기 어렵게 만들고,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우울 증상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이로 인해 우울 증상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김지은, 2012; 황윤조, 2011)와 비슷한 맥락에 있다. 또한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초등학교 자녀의 자기가치감은 낮았으며, 자녀의 낮은 자기가치감은 높은 우울 증상으로 이어졌다는 연구(Garber et al., 1997)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심리적 통제를 하지 않는 것이 청소년의 자기수용 능력을 길러주고, 우울 증상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 자녀들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자녀에게 과도한 학업적 압력을 가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가 이러한 과도한 통제를 한다고 지각하는 자녀들은 본인의 능력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워한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수용 능력은 핵심인물인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주로 발달하기 때문에, 부모가 심리적으로 통제하면 자녀는 스스로를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부모의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부모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되면 결국 우울 증상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아버지의 영향력은 어머니의 영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아버지들이 많아졌을지라

도 여전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훨씬 큰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엄부자모의 양육행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들도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해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보다 더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청소년의 자기수용이 매개하는 모형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따른 청소년들의 우울 증상에는 성별의 차이가 없으며, 자기수용의 매개효과에 있어서도 성별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 자녀의 자기수용이 그 관계를 매개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송지은, 임정하, 2015)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통해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여부에 있어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수용이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상관없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과 자율을 경험하며,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에서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표집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모든 변인들이 단일보고자 방식으로 평가되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Barber(1996)에 따르면 양육방식은 실제와 지각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주관적 경험이기 때문에, 양육방식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자녀의 지각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 이러한 제한에 근거하여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점수를 수집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부모가 모두 보고하는 다중보고자 방식으로 평가하여 양육방식의 실제와 영향을 다각도에서 살펴본다면, 부모-자녀 관계를 각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의 성별을 고려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자기수용 및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지각하는 정도나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수준 및 우울 증상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보다 부모에게서 더 독립하고자 하는 등 다른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자녀의 연령도 고려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우울 증상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해본다면, 청소년 자녀들의 우울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많은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자기수용이 갖는 중요성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적 역할을 증명함으로써 각 변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청소년의 우울 증상을 이해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희양, 양경화 (2013).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분석: 우울과 자기개념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1), 539-554.
- 박금주, 문은영 (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김갑숙, 전영숙, 이철우 (2009). 청소년의 부모 애착, 자아분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족치료학회지*, 17(1), 209-224.
- 김미령 (2014). 자기초점주의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영성의 조절효과. *종교교육학연구*, 44, 21-44.
- 김보경, 민병배 (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1), 221-236.
- 김봉년, 조수철 (2000). 소아-청소년기 우울증의 치료전략. *대한정신약물학회지*, 11(3), 216-231.
- 김사라형선 (2005).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정서 관계에서 아동의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중재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사라형선 (2012).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33(3), 119-130.
- 김선하, 김춘경 (2006). 사회-환경적 변인과 인지적 변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아동학회지*, 27(6), 249-261.
- 김영아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대한 대인표상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희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트레스와 정서경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자기위로 능력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지은 (2012).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우울 증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한조 (2010). 다집단 분석에서의 부분동일성 검증 전략들: 적절한 전략을 찾기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이은경 (2009).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 부모의 심리적 통제 구성요소의 타당성 연구: 분리불안 심리적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아동학회지*, 30(2), 211-229.
- 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Soenens, B. (2008). 부모의 심리적 통제유형이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비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65-78.
- 박슬기 (2011). 남녀 청소년의 부모 애착, 분리-개별화, 또래관계의 질 및 우울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신영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역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효정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은경 (2011). 수퍼바이지의 완벽주의와 개인수퍼비전 작업동맹의 관계: 수치심, 자기수용, 인지대처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준모 (2016).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종단적 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8(4), 93-111.
- 송지은, 임정하 (2015). 부모수용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6(4), 117-144.
- 안명희, 신희수 (201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2), 227-253.
- 오연경, 임정하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9(3), 1-14.
- 우수경, 김기에 (2013). 청소년의 성, 학교급, 시험불안 및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2(2), 165-195.
- 우채영, 정현희 (2013). 청소년이 지각하는 인간관계 스트레스와 우울, 비행 간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0(6), 147-168.
- 유성민 (2014).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무조건적 자기수용 및 대인관계 친밀감 간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임경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라 (2017). 자기수용과 우울의 관계: 자기초점적 주의와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박성연 (20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8(4), 101-123.
- 이은택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무조건적 자기수용 및 분노표현 간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선, 이형실 (2012). 청소년의 우울 관련 요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4(4), 77-89.
- 이지련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 및 심리적 통제와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은, 김은영 (2015). 대학생의 부정적 스트레스 지각과 우울: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11), 1-20.
- 임전옥, 장성숙 (2012). 자기수용 연구의 동향과 제언. *인간이해*, 33(1), 159-184.
- 임정하, 송지은, 곽태희, 백지민, 권오연 (2017). 남녀 청소년의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8(3), 209-235.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옥분 (2006).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 정유나 (2015).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주, 이은희 (2013).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 역할. *한국청소년연구*, 24(1), 35-70.
- 최인숙 (2012). 성별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우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 135-160.
- 추미례, 이영순 (2014).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27-43.
- 황윤조 (201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귀인성향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Bean, R. L., & Erickson, L. D. (2002). Expanding the study and understanding of psychological control.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4), 1120-1136.
- Barber, B. K., Stolz, H. E., & Olsen, J. A.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4), 1-137.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eck, J. S. (1997). 인지치료: 이론과 실제. 최영희, 이정흠(역). 서울: 하나의학사. (원본 발간일, 1995)
- Blatt, S. J. (2004). *Experiences of depression: Theoretical, clinical, and research perspectiv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osco, G. L., Renk, K., Dinger, T. M., Epstein, M. K., & Phares, V. (2003). The connections between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s, parental psychological symptoms, and adolescent functioning.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4(2), 179-200.

- Carson, S. H., & Langer, E. J. (2006). Mindfulness and self-acceptance.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24(1), 29-43.
- Cascio, V. L., Guzzo, G., Pace, F., Pace, U., & Madonia, C. (2016). The relationship among paternal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self-esteem, and indecisiveness across adolescent genders. *Current Psychology*, 35(3), 467-477.
- Chamberlain, J. M., & Haaga, D. A. (2001).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19(3), 163-176.
- Cross, S. E.,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1), 5.
- Ellis, A. (1977). Psychotherapy and the value of a human being. In A. Ellis & R. Grieger (Eds.), *Handbook of rational-emotive therapy* (pp. 99-112). New York: Springer.
- Flett, G. L., Besser, A., Davis, R. A., & Hewitt, P. L. (200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depression.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21(2), 119-138.
- Garber, J., Robinson, N. S., & Valentiner, D. (1997).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 depression: Self-worth as a mediat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1), 12-33.
- Hankin, B. L., Abramson, L. Y., Moffitt, T. E., Silva, P. A., McGee, R., & Angell, K. E. (1998). Development of depression from pre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Emerging gender differences in a 10-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1), 128.
- Negovan, V., Bagana, E., & Dinca, S. (2011). Gender, age and academic standards of school differences in adolescents' self acceptance.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2, 40-48.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gers, K. N., Buchanan, C. M., & Winchell, M. E. (2003). Psychological control during early adolescence: Links to adjustment in differing parent/adolescent dyad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3(4), 349-383.
- Russell, A., & Saevel, J. (1997). Mother-son, mother-daughter, father-son, and father-daughter: Are they distinct relationships?. *Developmental Review*, 17(2), 111-147.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07). Distinguishing among types of psychological control: Separation-anxious versus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In A. Assor(Chair), *Disentangling the construct of parental control: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SRCD), Boston, MA.
- Steinberg, L. (2001). We know some thing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1), 1-19.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1 차원고접수 : 2019. 01. 08.

수정원고접수 : 2019. 02. 28.

최종게재결정 : 2019. 06. 24.

The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Male and Female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Mediation by Self-Acceptance

Kwon, Ohyeon

Dept. of Human Ec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Lim, JungHa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acceptance in relation to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 total of 373 middle or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the Gyeonggi area participated. The factor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self-acceptance and depressive symptoms were assessed using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metho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ies, percentiles, means, standard deviations,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a multi-group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level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s' self-acceptanc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s a function of gender. However, the average level of depressive symptom was higher in female adolescents than in male adolescents. Second,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ffected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indirectly via self-acceptance.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influenced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via self-acceptance. The mediation model was invariant across gend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can be lowered by reducing negative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enhancing adolescents' self-acceptance.

Keywords: psychological control, self-acceptance, depressive symptoms, parents, adolescent